

미리보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

‘쿤스트할레 광주’ 어제 개관
실험적 공연·첨단작품 전시

컨테이너로 만든 실험적 문화공간인 ‘쿤스트할레 광주’가 31일 문을 열고 광주 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이날 저녁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2014년 준공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쿤스트할레 광주’를 개관했다.

이 공간은 아시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라는 뜻으로 ‘아시아 문화마루’란 한글이름도 붙었다. 이 공간은 문화전당이 공식적으로 준공될 때까지 4년 동안 운영되며 전시나 공연을 서너달에 한차례씩 바꿀 예정이다.

이 공간은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의 북동쪽에 컨테이너 박스 29개를 3층까지 성벽처럼 쌓아서 건축면적 520㎡(158평), 연면적 1019㎡(309평) 규모로 만들었다. 중앙 홀에서는 영상, 무용, 소리 등을 합성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들을 펼치고, 전시실과 공연장에서는 첨단과학, 미디어, 컴퓨터를 활용한 독특한 작품들이 선을 보인다. 3층 옥상은 화랑 형태로 인근 문화전당의 공사 진척을 살필 수 있는 전망대로 쓰이고, 통로 안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에선 세계 각국의 예술 도서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 콘텐츠를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아시아 문화마루-쿤스트할레광주’가 3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문을 열었다. 쿤스트할레 광주는 연면적 1019㎡에 컨테이너 박스 29개가 설치돼 있으며, 회랑을 따라 소규모 도서관과 교육 공간,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중앙에는 영상과 무용, 소리, 첨단미디어가 합성된 공연이 열린다.

광주/연합뉴스

개관행사로는 스위스 아트그룹 이토 이(伊-Toy)의 그룹전시가 11월7일까지 열린다. 이토이는 이날 열린 개관식에서 디제이 퍼포먼스와 바비큐 파티 등을 펼쳐며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이토

이는 스티로폼 공 16개를 연결해 디지털 정보를 나누고 인체의 동작에 반응하는 ‘타마타’를 만든 것을 비롯해 ‘미션 인터너터’ ‘이토이 브루드’ 등 실험적 작품을 설치했다.

박광석 문화중심도시추진단 팀장은 “과학과 예술을 융합하는 등 새로운 영역을 미리 보여주는 공간”이라며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말했다. 인민속 기자 okahn@hani.co.kr